[대만] 신종 코로나, 소비 패턴 변화시킬까

최근 대만소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확산으로 마트 및 외식을 기피하고 배달 주문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 관련 업계에서는 급기야 배달 서비스 도입 운영이 한창이다.

우버이츠(UberEats), 푸드판다(Foodpanda) 등 음식 배달 전문 업체들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기존의 음식점 배달 외에도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의 물건을 배달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확대중이다. 까르푸, A-Mart, 7-11 편의점, 패밀리마트(Familly Mart), 드럭스토어 등의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의 대형 유통매장 A-Mart는 2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 되었고, 그 중 온라인·배송 매출은 90% 증가하였다. 배달 주문량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신선채소, 과일, 쌀, 즉석식품 등이다.
까르푸는 2월 이후 하루 11,000건의 배송을 기록하였고, 하루 평균 8,000건 수준이다. 코로나 이전 하루 평균 4,000건 대비 2배가 증가한 셈이다.

고객 방문이 줄어든 백화점에서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 배달앱 업체와 협력중이다. 배달 주문에 소극적이었던 백화점 푸드 코트도 배달앱을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한편 바이러스 사태 확산으로 거리에 유동인구가 감소되는 가운데 대만법인 상업발전연구원에서는 유통매장과 달리 열세한 작은 식당 또는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현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의 도입 대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시사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대만 소비형태가 온라인·배달 서비스로 변환되는 가운데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한 단기 현상에 그칠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자료원:
https://udn.com/news/story/7270/4355451?from=udn-catelistnews_ch2
https://www.chinatimes.com/newspapers/20200220000535-260110?chdtv
https://wealth.businessweekly.com.tw/GArticle.aspx?id=ARTL010022317